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01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7.16~2026.07.2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민선(위성곤), 추경, 국비, 항공, 무사증
경제·관광	관광객, 수출, 감귤, 콘텐츠, 여행
지역·사회	폭염(열대야), 구조, 예방, 낚시, 병원

※ 분석 기간 : 26.07.16.~26.07.2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 민선 9기 첫 공공기관장 공모 착수 -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본격 운영 - 민선 9기 첫 정기인사 8월 25일 단행
	추경	- 민선 9기 첫 8조4747억 추경 심사 돌입 - '민생 추경' 실효성·복지 비중 논란 - 청다오 화물항로 손실보전 예산 쟁점
	국비	- 국고보조금 571억 반납 논란 - 미래산업 실증 거점 국비 지원 건의 - 800조 예산 시대 제주 국비 확보 기대
	항공	- 도민 항공 이동권 국회 제도개선 논의 - 제주형 항공 공익서비스 의무(PSO) 제안 -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시행규칙 마련
	무사증	- 무사증 외국인 육지여행 허용 건의 - 무사증 개편에 관광업계 우려 확산 - 관광·문화·체육 8대 과제 정부 건의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제헌절 연휴 관광객 16만6000명 방문 - 관광업계 전국 주요도시 유치전 총력 - 가족 관광객 농어촌민박 숙박 지원 확대
	수출	- 상반기 수출 4.4억달러 역대 최고 - 제주 청정화장품 글로벌 시장 공략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감귤	- 여름 하우스감귤 출하·판촉 본격화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 1차산업 조수입 2년 연속 5조원 돌파
	콘텐츠	- 여름 성수기 야간관광 콘텐츠 집중 운영 - 이호 필터 페스티벌 등 여름 축제 다채 - 관광 만족도 전국 1위, 물가는 과제
	여행	- 외국인 도시민박업 진출 불허 결정 - 일본 간사이 교육여행 팸투어 유치 - 농식품테크 박람회 '푸파페 제주' 개막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폭염	- 전국 유일 폭염경보 속 첫 사망자 발생 - 폭염 재난 비상 1단계 가동 총력 대응 - 보름째 열대야·고수온 주의보 확산
	구조	- 멸종위기 붉은바다거북 잇단 구조 - 탈진 멸종위기 붉은박쥐 구조·방사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잇단 인명피해
	예방	- 폭염·장마철 식중독 발생 급증 비상 - 영세 관광사업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 - 건설현장 온열질환·산업재해 예방 강화
	낙시	- 이례적 여름철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 - 테트라포드 추락 등 낚시객 사고 속출 - 금어기 소라 불법 채취 잇단 적발
	병원	- 장원영 제주대병원장 취임, 지역완결형 의료 - 제주의료원장 등 공공 의료기관장 공모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확대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7월 16일~7월 22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51건임
 - 정치·행정 분야 295건, 경제·관광 172건, 지역·사회 384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민선(위성곤), 추경, 국비, 항공, 무사증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 민선 9기 첫 공공기관장 공모 착수 ·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공모가 시작되어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원장, 제주의료원장 등 연내 임기가 도래하는 7대 기관장 인선이 잇따를 전망이다. · 제주TP 원장은 제주형 미래산업 발굴과 기업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8월 4일 까지 공모가 진행되고,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인선이 새 도정의 국정철학을 실행에 옮기는 인적 기반 구축의 신호탄으로 주목됨. -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본격 운영
-------	-------------	---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 위성곤 지사가 물가·소비·소상공인 매출 등 서민경제 지표를 상시 점검하는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고, 10대 소비 품목을 선정해 물가를 관리하며 주요 경제 지표를 수시로 확인·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 · 다만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에서 상황실이 1~2개월 이전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시간 대응이라는 취지와 달리 뒷북 행정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지표의 시의성 확보가 실효성의 과제로 부각됨. - 민선 9기 첫 정기인사 8월 25일 단행 · 제주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기인사를 8월 25일 단행하기로 하고 7월 24일 희망보직 신청 마감, 8월 3일 승진심사 인원 공개 등 일정을 공개했으며, AI 기반 행정혁신과 기후경제 등 핵심 정책을 이끌 인재를 전진 배치할 방침임. · 성과와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갑질·소극행정에는 인사 불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민생·기후경제·AX 전환을 이끌 역량 중심의 인사가 새 도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추경	- 민선 9기 첫 8조4747억 추경 심사 돌입 · 제주도의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제453회 임시회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인 8조474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과 조직개편안 심사에 돌입하였으며, 위성곤 지사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함. ·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4615억 원을 증액해 소상공인·1차산업·관광산업 지원과 탐나는전 포인트 재개, 유류비·전기차 지원 등에 배정하였으며, 송영훈 의장은 효과보다 명분이 앞선 사업은 과감히 건너내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함. - '민생 추경' 실효성·복지 비중 논란 · 위성곤 도정이 민생안정을 앞세워 편성한 첫 추경안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으며, 특히 100대 정책과제인 복지예산 30% 목표와 달리 복지 비중이 23.7%로 하락한 점이 도마에 오름. · 관광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할인·리워드에 치우쳐 도민·소상공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규모 집행잔액 반환, 관광진흥기금 부적절 사용, 농가 요구에 맞는 사업 발굴 미비 등이 쟁점으로 제기됨. - 청다오 화물항로 손실보전 예산 쟁점 · 제주도가 제주~청다오 직항 화물선 손실보전을 위해 제2회 추경안에 손실보전금을 편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 등이 항로 개설 협정의 위법성 논란을 지적하며 추경 편성에 앞서 협정 원문과 변경 경위 공개 등 진상 검증이 먼저라고 촉구함. · 올해 청다오 항로 손실보전 규모가 71억5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도민 혈세 투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의 재협상과 정산 관리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정치·행정	국비	- 국고보조금 571억 반납 논란 · 제주도가 국비 지원사업의 정산 등 업무 소홀로 57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반납하게 된 사실이 도의회 심사에서 드러났으며, 반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270억 원이 1차산업 관련 예산인 것으로 나타나 행정 소홀이라는 질타가 이어짐. · 미집행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기타 잡수입으로 재사용하거나 수년째 반환을 미룬 사례가 지적되면서 FTA 기금 패널티 등 재정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었고, 도의회는 알고도 방관한 것이라며 정산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를 요구함. - 미래산업 실증 거점 국비 지원 건의 · 위성곤 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국내 최초 분산에너지 선도모델 구축과 인공지능 전환(AI) 대전환,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생태계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에 대한 248억5000만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함. ·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 아래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와 해상풍력 지원도 함께 요청하였으며, 내년 국비는 실증·타당성·기본계획 등 신산업의 기초 단계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함. - 800조 예산 시대 제주 국비 확보 기대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알파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교부금 특례를 적용받는 제주의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되는 상황임. · 위성곤 도정이 2027년 국비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보다 10% 늘어난 2조 4576억 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신산업 개척과 기반시설 사업의 국비 반영 논리를 정교화하고 중앙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함.
	항공	- 도민 항공 이동권 국회 제도개선 논의 · 문대림·김한규·김성범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려 제주 노선 좌석난 해소를 위한 항공 이동권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생활필수교통망으로서 공익서비스 의무 도입이 제안됨. · 정부는 제주도가 필요 좌석수와 노선을 먼저 파악하고 조례에 도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제주 기반 항공산업 성장의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맞서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냄. - 제주형 항공 공익서비스 의무(PSO) 제안 · 국회 토론회에서 김연명 한서대 항공융합대학원장이 도서·벽지 노선에 적용되는 공익서비스 의무(PSO) 개념을 제주 항공교통에 접목한 '제주형 PSO' 도입을 제안하며 항공 좌석난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항공기 소형화와 감편으로 만성화된 좌석 부족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책임지는 제도 설계 필요성이 부각되어, 도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전환의 논의 기반이 마련됨.

정치·행정	항공	-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시행규칙 마련 · 제주 노선 항공기 좌석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노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시행규칙안이 마련되어 다음 달 시행될 전망으로, 제도적 지원 근거가 구체화됨. · 제주도와 항공사가 좌석난 해소 등을 위한 재정 지원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비행기표 대란 해결을 뒷받침할 실효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음.
	무사증	- 무사증 외국인 육지여행 허용 건의 · 위성곤 지사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제주를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함. · 무사증 제도 개선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인 가운데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장관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출입국외국인청과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체류기간·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함. - 무사증 개편에 관광업계 우려 확산 · 무사증 외국인의 육지 이동 허용 건의를 두고 제주가 단순 출입국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관광업계에서 확산되었으며, 국내선 항공편 부족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무사증 전국 확대 제도화 가능성 등이 함께 지적됨. · 관광객 증가 기대와 경유지 전략에 따른 손해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도의 회에서도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와 제도 개선의 득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됨. - 관광·문화·체육 8대 과제 정부 건의 · 위성곤 지사가 문체부 장관에게 무사증 제도 개선과 함께 중문 관광인재 양성 거점 조성, 제주올레 체류형 콘텐츠 '글로벌 생태 예술 트레일' 구축, 서귀포 복합체육시설·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등 관광·문화·체육 분야 8대 과제를 건의함. · 국비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제주를 세계 인재가 집결하는 관문형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새 도정의 관광정책이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줌.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수출, 갑골, 콘텐츠, 여행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제헌절 연휴 관광객 16만6000명 방문 · 18년 만에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 연휴를 맞아 나흘간 16만6000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7일 하루에만 4만7000명이 입도하고 국내선 탑승률이 91.6%를 기록함. · 다만 크루즈 관광객 감소와 연휴가 주말까지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내국인 관광 특수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와, 항공 좌석난 속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유치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됨. - 관광업계 전국 주요도시 유치전 총력 · 항공 좌석 부족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제주 관광업계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탐나오 할인, 뱃길 지원, 야간 관광상품 홍보 등 여름 휴가철 내국인 관광객 유치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임. · 부산 벡스코 등에서 로드홍보를 진행하며 항공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병행하였고, 침체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업계와 행정의 공동 대응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본격화됨. - 가족 관광객 농어촌민박 숙박 지원 확대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가족 단
-------	-----	---

경제·관광	관광객	위 관광객이 안전 인증 농어촌민박에서 2박 이상 숙박하면 2만 원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며, 기존 다자녀가구 대상에서 모든 가족 단위 여행객으로 대상을 확대함. · 다자녀가구 3박4일 4만 원 지원도 계속 유지되고 선착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탐나는전·면세점 이용권 등이 제공되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안전 인증 숙박시설 이용 촉진을 동시에 도모함.
	수출	- 상반기 수출 4.4억달러 역대 최고 ·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수출이 4억4231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45.6%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수출 증가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함. · 반도체 수출이 401% 급증하며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납치·감귤·화장품 등 전통 주력 품목도 동반 호조세를 보여, 중동발 위기 등 대외 악조건 속에서도 제주 수출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확인함. - 제주 청정화장품 글로벌 시장 공략 · 청정 제주의 천연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코스모뷰티서울과 인터참코리아 등 국내 대표 뷰티 박람회에서 세계 50여 개국 바이어의 주목을 받아 82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18억 원의 수출 성과를 거둠. · 기능성 스킨케어와 에센셜 오일 등 제주 특화 품목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으며,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홍보관 운영을 지원해 지역 화장품 산업의 해외 판로 확대 기반을 다짐.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제주도가 제주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싱가포르·대만·일본·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13개국 42개사 바이어를 초청하는 해외 수출상담회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지역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지원함. ·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전에서 제주 식품기업 6개사가 36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20만 달러 규모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확대에 대비한 인증 실무 세미나도 개최되는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이 다각화됨.
	감귤	- 여름 하우스감귤 출하·판촉 본격화 · 풍부한 과즙과 산뜻한 단맛을 지닌 제주 하우스감귤이 본격 출하철을 맞아 소비자 호응을 얻는 가운데, 제주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판촉행사를 열어 지난주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섬. ·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평균가격이 상승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름철 소비 확대를 위한 통합마케팅과 판촉 활동이 본격화됨.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 제주도가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을 대상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7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지역 농·감협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으며, 주 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밑돌면 차액을 지원함. ·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통해 감귤 주산지의 경영 안정과 수입

경제·관광	감굴	관리를 도모함. - 1차산업 조수입 2년 연속 5조원 돌파 · 제주도내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조2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며 2년 연속 5조 원 시대를 이어갔으며, 감귤과 발작물 가격 하락에도 수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18.5%, 2.3% 늘며 감소분을 보완함. · 생산·유통 데이터 기반의 수급관리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 결과로 평가되며,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 1차산업이 안정적 규모를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줌.
	콘텐츠	- 여름 성수기 야간관광 콘텐츠 집중 운영 · 밤에 취약한 제주관광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 캠페인 '더-제주 포시즌'과 연계해 7~8월 이호테우해변·산지천·새연교 등지에서 다양한 체류형 야간관광 행사를 집중 운영함. · 관광객이 낮에 이어 밤까지 즐기며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제주시티투어 야밤버스 운행 등 이동 편의도 더해 야간관광을 성수기 관광 경쟁력의 축으로 육성함. - 이호 필터 페스티벌 등 여름 축제 다채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24일부터 사흘간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친환경 야간 관광 축제 '2026 이호 필터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여행자 각자의 시선으로 제주를 새롭게 경험하는 동시에 삶의 터를 지키자는 취지를 담아냄. · 불꽃쇼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무더위 속 제주의 밤을 채우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에 지역 창업기업 콘텐츠를 연계하는 소통협의회도 열려 관광개발을 지역경제와 잇는 방안이 모색됨. - 관광 만족도 전국 1위, 물가는 과제 · 2025 국민여행조사에서 제주의 관광여행 전반적 만족도가 83.2점, 숙박여행 만족도가 83.4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3.27일을 머무는 체류형 관광의 경쟁력이 확인됨. · 다만 당일여행 물가 만족도가 64.8점에 그쳐 물가와 혼잡도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제주도는 청소년 대상 스마트관광 데이터톤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관광 현안 해법 발굴에도 나섬.
	여행	- 외국인 도시민박업 진출 불허 결정 · 제주도가 도내 숙박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숙박 영업이 허용되면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신규 진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사업 종류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기존 숙박업계를 보호하고, 과잉 공급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됨. - 일본 간사이 교육여행 팸투어 유치 ·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와 함께 일본 해외 교육여행 시장의 핵심 지역인 간사이 지역 학교 및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제주 교육여행' 팸투어를 진행하며, 교육·문화 인프라와 자연·생태, 미래산업 체험형 콘텐츠를 중점 소개함.

경제·관광	여행	·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팸투어를 통해 제주를 체험형 교육여행 목적지로 부각시키고, 무사증 등 관문형 관광 구상과 연계해 외국인 교육여행 수요를 확대하는 기반을 다짐. - 농식품테크 박람회 '푸파페 제주' 개막 · 제주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박람회 '푸파페 제주'가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제주 농업과 미래 농식품산업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먹거리와 농식품 기술을 소개함. · 제주 창업기업 제품이 서울 코엑스 농식품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서 완판되고 대만 수출 제안까지 이끌어내는 등 농식품 분야의 관광·산업 융합 콘텐츠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폭염(열대야), 구조, 예방, 낚시, 병원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폭염 (열대야)	- 전국 유일 폭염경보 속 첫 사망자 발생 ·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중산간까지 폭염경보가 확대되고 최고 체감기온이 36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된 가운데, 지난 16일 올해 제주의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고 온열질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남. · 한때 전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제주가 유일할 정도로 무더위가 극심하였으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산발적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속에서도 밤낮 없는 불볕더위가 도민 건강을 위협함. - 폭염 재난 비상 1단계 가동 총력 대응 · 제주도가 폭염특보 확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위성곤 지사 주재로 폭염·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인명·1차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함. · 무더위 쉼터 전수 점검, 자활사업 참여자 냉감용품 지원, 일용근로자 기후보험 첫 시행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서귀포시는 재해 취약 축산농가 775곳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섬. - 보름째 열대야·고수온 주의보 확산 · 제주지방에 열대야가 보름째 이어지고 정체전선이 남하하지 못하면서 다음 주까지 밤낮으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연일 이어진 무더위로 제주 연안 전역에는 수온 28도 기준의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 · 농작물 파종지의 초기 가뭄 현상이 우려되어 서귀포시가 농업분야 가뭄·폭염 대응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폭염이 육상 건강뿐 아니라 해양 양식과 농업 전반으로 피해 범위를 넓히는 양상임.
지역·사회	구조	- 멸종위기 붉은바다거북 잇단 구조 · 서귀포시 새연교 인근 갯바위에서 폐그물에 온몸이 감긴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이 해경에 구조돼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으며, 22일에는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에서 70kg에 달하는 폐그물 덩어리에 갇힌 바다거북이 가까스로 구조됨. · 해양 폐그물에 걸린 멸종위기 해양생물 구조가 잇따르면서 연안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해경의 신속한 대응이 멸종위기종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해양 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됨. - 탈진 멸종위기 붉은박쥐 구조·방사 · 일명 황금박쥐로 불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붉은박쥐가 만장굴 입구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돼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가 구조·치료한 뒤 건강을 회복시켜 만장굴 안으로 방사함. · 동굴 개방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가 탈진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자연유산 동굴의 생태 보전과 관광 개방 간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역 야생동물 구조 체계의 역할이 주목됨.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잇단 인명피해 · 주말 제주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삼양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70대가 숨지고 어린이 3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무더위로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수난사고 위험이 커짐.

지역·사회	구조	· 서귀포 남원에서는 SUV 2대 충돌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사고가 이어져, 여름 성수기 해상·교통 안전관리와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예방	- 폭염·장마철 식중독 발생 급증 비상 · 올해 들어 제주지역 식중독 발생이 급증해 5월 말 기준 신고 17건에 환자 343명에 이르면서 요식업소는 물론 관광객도 식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고온다습한 폭염·장마철 위생 관리가 강조됨.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방당국이 숙박시설·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소방시설 차단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예방 활동이 전방위로 확대됨. - 영세 관광사업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10인 미만 영세관광사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한 보고서를 발간해, 지도·지원 의무 조항이 없어 일반 법정교육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함. · 민간부문 직장내 영세업체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장애인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 취약 대상별 인권·안전 교육 강화 노력도 병행됨. - 건설현장 온열질환·산업재해 예방 강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등과 함께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함. ·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제주동부소방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출범시키는 등 노동·생활 안전 예방 체계가 다층적으로 강화됨.
	낙시	- 이례적 여름철 낙시 안전사고 주의보 ·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여름 휴가철 낙시객 증가와 테트라포드 추락·갯바위 사고 잇따른 상황에 대응해 통상 가을에 발령하던 낙시 안전사고 주의보를 이례적으로 여름철에 발령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 ·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낙시 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63건에 달하고 야간 낙시가 활발해지면서 어두운 환경의 추락·낙상과 갑작스러운 파도 위험이 커진 만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가 당부됨. - 테트라포드 추락 등 낙시객 사고 속출 · 제주시 도두포구에서 낙시하던 7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지는 등 방파제 인공구조물에서의 추락·익수 사고가 잇따라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이 이어졌으며,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의 위험한 낙시 관행이 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지적됨. · 여름 밤바다의 무더위를 피해 야간낙시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예방·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함. - 금어기 소라 불법 채취 잇단 적발 ·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임에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해경이 수산자원

지역·사회	낚시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등을 잇따라 적발하였으며, 개인 소비나 체험 목적의 채취도 처벌 대상으로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소라 금어기가 산란기·성장기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겨 적발되는 경우가 계속돼, 해경은 금어기와 관련 법령을 확인·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 나섬.
	병원	- 장원영 제주대병원장 취임, 지역완결형 의료 · 제9대 제주대학교병원장으로 장원영 신임 병원장이 취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제주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임기 3년의 병원 운영 방향을 제시함. ·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교병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도외 원정진료를 줄이고 필수·응급의료의 지역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제주 의료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 - 제주의료원장 등 공공 의료기관장 공모 · 제주도가 이상훈 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방 공공 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을 이끌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을 8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민선 9기 출범 후 이어지는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됨. · 공공 의료기관장 인선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새 도정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인사로 관심을 모음.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확대 · 서귀포보건소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정보단말기와 AI를 활용한 건강관리 ICT 교육을 실시하며, 디지털 기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활기찬 노후를 지원함. · 고령화가 심화되는 제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건강관리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역량 강화 교육 등 어르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 노력이 병행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AI데이터연구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